

여야, 호남 민심잡기 경쟁...오늘 민주·국힘 광주 동시 출격

민주당, 광주시당서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 회의 국힘, 대표대행 518묘지·광주형일자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가 7일 광주에서 동시에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다. 6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한 민주당 지도부가 7일 오전 광주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 이용섭 광주시장,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송영길 대표체제에서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최근 4·7재보궐선거

후 참패 이후 심상치 않은 당의 뒷받침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새롭게 선출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같은 날 광주를 방문한다. 김 권한대행 방문에는 정양석 사무총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광주전남동행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형일자리 현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시당에서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 무안 남악 전남도당 개소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서진전략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가 동시에 광주에 출격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내년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호남 표심 공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체제이긴 하지만, 5·18기념식도 아닌데 여야 대표가 동시에 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정세균·김두관 조찬 회동 “대선 경선 시기 연기 필요”

“경선물, 주자 간 합의 중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6일 조찬 회동을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정식당 ‘달개비’에서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조찬 회동에선 현행 180일인 민주당 대선 경선 시점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중구 한정식당 달개비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 = 김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회동 후 페이스북에 정 전 총리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의 지지율과 신뢰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런 당내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법도 있지만 단체협약이 우선인 사례도 있다”며 “과거 대선도 대선주자 대리인들이 모여 롤미팅을 했다. 그렇게 선수들끼리 룰에 대해 합의하는 게 중요했던 관행이었다”는 언급도 했다.

회동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현재 120일인 대선 경선 시점을 더 늦추려 한다는 야권 관계자의 전언을 언급하며 대선주자 간 경선물 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급에 정 전 총리도 경청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밖에 정 전 총리의 사회 초년생 청년 1억원 지원 공약과 김 의원의 기본자산세 공약과 관련한 공동 토론회 개최에도 양측은 공감대를 이뤘다.

그는 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경선 시기가 우리는 180일 전으로 돼 있지만 좀 이르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다”며 “지도부가 결정할 거지만 좀 연기해야 할 거 같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국민의힘도 120일인데 그것도 더 늦춘다는 소문이 있더라”며 “당내 검증기간이 좀 더 긴 건 그렇지만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판치고 야당의 파상공세를 고려

김 의원은 “기본자산세와 관련하여는 근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신 데 대해 감사하며, 관련하여 공동 토론회도 제안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하심에 감사하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여권 잠룡인 이광재 의원과도 회동을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이낙연 “2만달러 수준 복지, 3만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국민 삶 지켜주는 것이 ‘신복지’...함께 노력해야”



이낙연 전 대표는 “2만달러 수준에 놓여있는 복지를 3만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를 국가가 관리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4일 이낙연TV에 출연해 “신복지 개념은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UN이나 OECD, EU, 동남아 국가들도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8개 분야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

한 최저한 기준을 설정해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바로 이것이 신복지”라고 정의하며, 8개 분야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며 “단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복지가 너무 쳐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의 사례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놀이 중심으로 돌보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2025년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준비를 갖춰 부모님 퇴근시간까지 실시하는 것”

이라며 “그럴 경우,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통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이미 7가지를 내놓은 상태이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돌봄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인 현실에서 앞으로 거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된 우리의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서비스 같은 걸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아 MBC 전 아나운서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이 전 대표는 “하지만 한 달 동안의 민심 기행 △청년들의 고용 문제 △지나 재보궐선거 패배의 소감 △당심과 민심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개인적인 취향과 고민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김부겸 “세습·양극화 아프게 느낀다...2030세대에 미안”

“2030 절규 알아...더디 걸려도 제도개혁이 맞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정부 여당에 대한 2030세대 청년층의 민심 이반과 관련, “세습, 양극화 그런 단어가 (마음이) 아프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벼락거지, 세습 자본주의, 자산 양극화’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합의한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부모세대로서 2030 세대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기성세대) 우리는 기회가 열렸을 때 열심히

히 하지만 하면 자기 길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규를 알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서 요청하고 또 정치권에 요청하고 또 다른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방법, 더디 걸려도 그 방법이 맞는다”며 “소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길은 없다는 윤여정



선생의 말씀에 노배우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편견이 없이 한 그런 말씀으로 청년들이 조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